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오늘날 부모-자녀간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보호의 발생과정을 고찰하였다. 최근 국내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는 가운데 '과보호'와 관련되는 용어들 즉, '익애', '간섭' 또는 '통제' 등의 개념들과 과보호와의 관련을 찾아보고 그 차이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과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보호'의 관점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발달과정을 검토하고 영아에서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과보호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과보호현상의 발달심리학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아울러 과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 영향 그리고 과보호의 몇가지 유형을 검토하고 과보호 부모의 공통된 양육태도를 지적하면서 아동의 자율성의 발달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과보호를 발생하게 하는 사회적 배경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이 과보호가 단순히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건전한 보호와 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몇가지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과보호 · 부모-자녀관계 · 양육태도 · 익애 · 과잉간섭 · 통제 · 자율성,

'과보호'란 ?

'과보호'란 용어는 1929년에 D. Levy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 "A Method of Integrating Physical and Psychiatric Examination with Special Studies of Body Interest, Over-protection, Response to Growth, and Sex Differences"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논문을

기초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P.M. Symonds가 그의 저서 **부모자녀관계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1939)에서 현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지칭한 말로 사용한 이후, 이제는 이 용어가 신문지상을 비롯한 매스컴이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 이렇게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의미가 애매하면서 편리하다는 것과 그 말이 나타내는 현상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과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과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을 '마마보이' 또는 '오렌지보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고학용, 1996, p.73).

'과보호' 또는 '과잉보호'란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정도에 맞지 않게 지나친 보호나 도와줌"(장대운, 1993, p.208)을 말하는 예컨대, 의에, 과간섭, 밀어부치기, 어리광을 받아주는 것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신과의사, 아동심리치료를 비롯한 상담전문가 사이에서도 오늘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한 태도를 과보호란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최근의 우리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과보호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일간지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장과 다름없는 무장공비 수색작전 현장에서 일부 부모들의 '자식 과보호'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군경 및 강릉시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장공비 소탕작전 보도본부가 마련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장병들의 부모로부터 자식의 작전 참여여부와 안부를 묻는 이들의 전화에 담당장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 실망하여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지만 막무가내로 알아봐달라고 때쓰는 사람도 많아 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중앙일보, 96년 9월 24일).

E.B.Hurlock(1978)은 부모의 과보호는 유아로 하여금 "과도한 의존, 자신감의 결핍 및 욕구불만 같은 것"(p.223)을 갖게 하기 쉽다고 한다. 유영주(1990)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관심이 도리어 아동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고, 아동의 정서적인 불안을 초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시험불안을 증가시켜 성적을 떨어 뜨리고 부정적인 수업태도를 갖게 하며" 부모의 과보호적 태도는 "아동의 학업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p.28)으로 주장한다.

Schaefer와 Bayley(1960)에 의하면 "과잉보호적인 어머니들의 태도(maternal overprotection)는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한다... 즉, 스스로 모종의 공포와 불안에 빠져, 그러한 심리를 자녀들에게 투사함으로써 경직되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다루게 된다"(p.106)고 하였다. 유형근(1992)은 과보호적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신경질, 조숙, 자기중심성, 비사회성 및 정서적인 양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을 위시한 일본, 중국 및 태국의 아동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보호 문제에서 거론된 과보호로 성장된 아이들의 성격특징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日本教育心理學會, 1996).

지금까지 과보호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의 특징을 관련된 문헌들(김덕순, 1996, p.95; 김지신·박성연, 1997; 노희상, 1995, pp. 110-112; 박윤중, 1996, p.84; 박태희, 1996, pp.206-209; 이원영, 1983; 정순규, 1995, p.110; 정원식 등, 1996, p.28; 조병효, 1993, pp.18-19; 조선일보 사회부, 1991, pp.139-143; Baumrind, 1991)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공통적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인내심이 없다.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조금도 불편없이 다 해주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다.

2) 화를 잘 낸다.

자녀가 화를 내면 부모는 절절 매고 그 요구대로 다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화를 잘 내게 된다.

3) 자기중심적이다.

가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고 온 식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자랐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든 견디기 어렵고 고난을 이길 힘도 없고 다만 가장 안일하게 살 수 있는 환경만을 추구하며 생활해나려 한다.

4) 사람들의 주목을 항상 얻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세밀한 것도 일일이 걱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적으면 자기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적다고 느끼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행동을 한다.

5) 열등감을 가진다.

이런 아동은 자만심이 강하고 자신이 있어 보이기에는 하나 타인과 접촉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심에는 불안이 가득하다.

6)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다.

세밀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대단히 과민하다. 그러므로 계속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그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침착하지 못하고 신경질이 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과보호라고 하면 보호자 즉 부모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식들에게 필요이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는 보호를 주는 측과 보호를 받는 측의 문제, 양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 및 주어지는 보호의 질 등과 같은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해 과보호하는 경우, 단순히 부모측만의 문제로 하기에는 단순하지 않는 면이 있다. 즉, "과보호란 보호자(부모)와 피보호자(자식)간의 상호관계의 한 모습"(황용연·이기돈, 1992, p.255)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보호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자녀관계를 어린이의 출생시부터 발달에 따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흔히 과보호라고 불리우는 현상도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의 원인에서 시작된 것이고, 또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과보호 현상이 현대의 교육적 또는 임상적 의미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임희수와 박성연(1994)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과잉보호' 또는 '과잉간섭', '통제'나 '억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른바 '과보호의 현상'을 다루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반

적으로 논의되는 '과보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과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과보호현상'과 관련된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이들 연구에서의 과보호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개념들과 과보호와의 관련성과 그 차이점을 논의한 후에 과보호의 현상의 심리학적 의미를 부분적으로나마 탐색해보고자 한다. 비록 한 시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과보호에 대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발달을 몇가지 주요한 발달이론 즉, Mahler(1975)와 Erikson(1963)의 자아의 성장론에 근거해서 과보호가 나타나는 모습을 검토하고, 아울러 과보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찰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각 개인이 최대한 넓게, 높게, 깊게 그 가능성을 실현함을 도와주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인간적 특성과 능력을 기르는 것"(정범모, 1997, p.328)을 궁극적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교육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과보호 현상과 관련된 연구들과 과보호 현상의 특징

관 렾 연 구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개가 상반되는 행

동 또는 차원을 중심으로 공간축을 설정하여 양육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예컨대, 양육태도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애정-적개심, 자율-통제, 권위-통제, 적개심-거부, 애정-거부, 비간섭-강요(causal-demanding), 관심-무관심, 안달-태평(anxious emotional involvement-calm detachment) 등과 같은 차원으로 하고 있다(Baumrind, 1991).

국내의 연구에서는 온정-냉정, 과보호-자임, 허용-제약, 안달-태평, 민주·자율적·애정·수용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자율-권위·통제, 애정·수용-적대·거부 등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 대부분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과의 관련에 관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성격형성과 정서 및 인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양육태도에 관련된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자는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기질(김영희, 1996; 이미애, 1995; 임희수·박성연, 1994; 정은숙, 1984; 천희영, 1990), 애착유형(박용임, 1995)과 성격(정명교, 1983), 자아개념(신춘자, 1992; 윤경화, 1992) 또는 자존감(손화희·윤종희, 1990), 성취동기(노명희, 1991), 사회적 행동(김지선·박성연, 1997), 적응(김영숙, 1988; 김영희, 1996; 신춘자, 1992; 원영미, 1989; 유영희, 1979), 수줍음(정승원·도현심, 1997), 도덕성(이홍우·오만석, 1973; 정현희, 1990; 정현희·최경순, 1995) 등과 같은 아동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지능(안말애·조복희, 1985), 학업성취도(김영주, 1989; 이홍우·오만석, 1973; 전경숙, 1992), 창의성(조희령, 1982),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김영순, 1986) 또는 언어능력(이옥, 1978) 또는 자기역량감(공인숙·최연실, 1994) 등 아동의 능력에 어떠한 변화를 갖게 하는 가하는 연구들이다.

이들의 연구의 결과에서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과보호'와 관련된 부모의 행동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허용적이고 익애적인 부모들에 의해 자라나는 아동은 충동적이며 자기통제력이 낮으며, 공격적이고, 어른에게 저항하며, 불복종하며, 자기실패감이 낮고, 성취지향성이 낮다.
- (2)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기 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거부적, 익애적, 제한적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 (3) 지나친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가치있게 생각한다.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익애적,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4)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애정적·자율적·양육태도, 수용적 태

도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과잉보호는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5) 아동의 부모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및 도덕적 행동의 점수가 낮다.
- (6)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스스로 판단과 행동을 하기 어려운 어린 유아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함에 있어 그들에게 적절하게 제한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들의 집단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
- (7)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며 책임감이 없다.

'과보호'의 복잡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익애', '과잉간섭', '통제', '권위' 또는 '방임'을 다루면서 오늘날 논의되는 '과보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보호'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종래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취급하듯이 어떤 상반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차원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익애' 또는 '간섭'이라는 한가지 용어로서 대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과보호'는 단순히 보

호가 지나친 것 뿐만이 아니라, '방임' 나
아가서 '무책임'에 가까운 양육태도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오
늘날 우리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과보
호'란 수용적이면서도 간섭적이고, 관심이
지나친 것 같으면서도 무관심한 양육태도
를 말한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
하는 동시에 자식에게 부모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를 이루기 위해 자녀의 인생을 무
시해버리는 것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
모중심 자녀관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현대 가치관의 혼란상태에서 전통적 가
치관을 소유한 부모들이 다양한 가치관 속
에서 자신의 확고한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
체계가 서지 않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높은 애정과 합리적 지
도와 권위주의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
한 데서 나타나고 있는 자녀양육의 한 유
형을 '과보호'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양육태도의 연구에서
사용하듯이 '과보호'에 대한 개념을 대칭
또는 상반되는 한두가지의 개념을 일차원
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
구된 개념이 모두 포함된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과보호'에 대한
개념은 1987년에 발표된 이숙과 박성연
의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조
사연구에서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 유
형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으로 '중도적
유형 I'이라고 명명한 유형은 귀중한 시
사를 얻을 수 있다. '중도적 유형 I'이란
양육태도는 그들에 의하면 "아동을 하나
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기 보다는 부
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려는 태도에서 비롯

된 것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애정적 표현, 정서적인 지지, 보호 및 소
유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녀에 대한 무
시, 부정적 평가, 간섭 등을 나타내며.....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민주적, 자립
적 사고 방식과 전통적,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이 갈등적인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는
태도"(pp.85-86)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양육태
도의 한 시대적 모습인 '과보호'란 의미를
종래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율-통제 차원과
수용-거부, 또는 비간섭-강요 등의 차원
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아서 자녀에게 자립
적 사고의 고무, 평등주의적 대우를 해주는
반면에 소유 및 보호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간섭을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양육태도로 이해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다양한 차원들이 혼합되어
있는 양육태도의 형태로서 일관성을 상실
하고 있는 유형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보호'에 대한 접근은 과보
호가 갖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
선 이와 같은 과보호 현상이 나타나는 모
습을 종래의 어머니-자녀관계의 발달과
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
과보호 양육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탐색
하려고 한다.

부모-자녀관계

절대적 의존관계

갓태어난 신생아는 감각기관이나 운동
기관이 발달되지 않아 외계의 자극에 대
해서 반사수준 밖에 반응할 수 없다. 따

라서 외계의 환경이란 영아에 있어서 위협에 충만한 것이다.

즉, 갓태어난 아기는 전면적으로 어머니(양육자)에게 의존하며 어머니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단 일초도 그 생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 M.S.Mahler (1965)에 의하면 이 절대적 의존관계는 영아가 1세무렵까지 계속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영아가 낯가림(stranger anxiety)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애착대상인 어머니에게 떨어질 때 나타내는 불안반응이 강해지는 6~8개월까지를 절대적존관계의 시기로 보려한다. 그것은 서구의 경우, 분리불안은 6~8개월경에 나타나는 경향(Bowlby, 1969)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영아의 경우 분리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와 절정기가 각각 7개월과 12개월로 보고한 정영숙(1976)과 차재호(1985)의 보고에 의해서이다.

이 시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아동정신의학자인 D.W.Winnicott는 '끌어안은 것(holding)'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Winnicott, 1971). 그러므로 이러한 어머니-자녀관계가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에 있는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보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즉, 과보호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 측면에서 이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머니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것과 같은 애정박탈인 것이다.

자율의 기초

M. S. Mahler는 인간의 출생후 5개월에서 2세무렵까지의 시기를 '분리-개체화 단계(separation-individuation)'라고 부

르고, 이 시기에 유아는 어머니와의 분리를 시도한다고 보았다(Mahler, 1975). 한편, 아직 자타의 구분과 동시에 어머니(가족)와 다른 낯모르는 사람과의 구별이 가능하게 되어 낯가림과 분리불안을 일으키게 된다.

이상과 같은 영아의 발달에 대응하여 어머니는 차츰 아기에 대한 보호의 완전성을 감소시켜 간다.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는 어머니가 보호를 감호시켜 간다. 어린아기도 자신으로부터 어머니 측을 떨어진다고 해도 곧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가 자기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와 자녀간에는 분리와 융합, 자율과 의존이 상호 반복된다.

그리하여 어린이가 분리나 자율을 시도해보는 이 발달단계에서 처음으로 과보호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어린이 측의 신체적, 정신적인 미발달이나 어머니 측의 분리불안이나 또는 어린이의 외계의 위협에 대한 불안에 견디는 능력의 결여 그리고 공생적 어머니-자녀관계를 해소하는데 실패한 것 등에서 과보호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 적절한 통제(훈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 양육태도의 방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배하는가, 지배되는가

생후 거의 2년째가 되면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은 거의 완전하게 할 수 있게 되어 활동이나 지각의 범위는 현저하게 증대한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기능을 배우게 된다. 특히, 활약근의 통제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 등장한다. 배변훈

런은 단순한 활약근의 통제나 청결의 유지를 위한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어린이에 대한 요구나 기대를 이 훈육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훈육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반항할 것인지 갈등을 느끼게 된다. 어머니 측도 자신의 생각대로 어린이에게 하려고 애원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며 때로는 호소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때로는 물건을 주며 달래기도 한다(김덕순, 1996). 즉, 이 시기에는 어머니와 어린이간에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하여 이 관계는 의존과 자율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보이는 과보호는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어린이의 요구를 곧 수용해주거나 어린이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곧 도와주거나 또는 어린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버려두는 복종형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해주거나 어린이로 하여금 부모가 생각하는데도 따르게 하거나 어린이가 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귀찮게 간섭하거나 금지하는 지배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 두가지는 한편은 수동적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은 능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의 현상처럼 생각되지만 어머니의 지배욕이나 완전무결욕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어머니-자녀관계에서 쌍방 모두에게서 보이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자녀관계의 유형은 어린이를 자신의 요구를 강제로 실현하게 하

는 '제마음대로 하는 아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지키고 별다른 수고가 필요없는 '착한 아이'를 만들어 버린다. '제마음대로 하는 아이'나 '착한 아이'는 학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여러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2자관계에서 3자관계로

3세 무렵이 되면 어린이의 활동범위는 점점 넓어져 많은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이가 어머니와의 2사람의 세계에서 보다 넓은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은 어린이에 있어서 자극적인 것인 동시에 불안정한 것으로 어머니가 볼 때에는 불안과 불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부모 또는 사회로부터 자신의 욕망을 사회적인 가치에 순응하도록 요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아동들은 남녀성기의 차이, 특히 부모의 성기가 다름을 발견하고, 이에 의해 남자의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가 각각 다른 발달 과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아버지는 남성이고 어머니는 여성이란 것이 어린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Fagot & Leinbach, 1989).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관계가 아버지의 어머니 역할을 포함한 의미의 어머니-지식이라고 하는 2자관계이었던 것에서 이 남녀의 구별이 명확해 짐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3자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과보호는 우선 어린이가 이미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모의 반응인 경우가 많다. 아기로서의 어린이를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과잉으로 유아적인 의존관계를 바라거나

어린이가 만나고 부딪치는 외제를 지나치게 위협시하여 언제까지나 부모의 보호하에 그리고 감시하에 두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어린이에 대해 분노하여 어린이가 놀이에서 더럽혀지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것에 심하게 꾸중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간섭하고 또 꾸중을 반동형성적으로 과도하게 돌보려고 하기도 한다. 어린이 또는 어린이와 부모 쌍방 모두가 보다 이전의 유아적인 의존관계로 고집하고 있는 경우도 과보호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흥미로운 것은 부모 쪽에서 어린이에게 과도한 애정을 향하여 익애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 부모의 부부관계가 잘 되지 않을 경우나 한쪽 부모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익애도 과보호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아동에 대한 과보호와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밝힌 국내외 여러 연구들(노명희, 1991; 양문현, 1983; 윤경화, 1992; 임희수·박성연, 1994; Paulson, 1972)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혼생활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일관성 없는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거나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익애 또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학동기, 청소년기

6세 무렵에 시작하는 학동기에서는 자아의 중요한 성장과 가정 외의 사회관계의 발달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의 생활권은 가정으로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확대되고 그 속에서 사회

의 규칙을 몸에 익혀간다. 그리하여 친구나 교사가 어린이의 체험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때로 또래들간의 규칙이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우선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의존욕구는 아직 뿌리가 깊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적절한 격려나 충고 또는 승인은 어린이의 자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도 하다. 단계에서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통제력의 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중대한 사실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 바이다(손화희·윤종희, 1990; 이미정, 1988).

이 시기의 과보호는 지금까지 보인 유형에 계속되어 고정되어 버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일상생활, 특히 정리정돈에 관하여 일일이 귀찮게 지적하거나 어린이가 손대기 전에 미리 부모가 정리해주거나 또는 학습에 관해서는 과도한 간섭이나 개입, 학교장면이나 또래관계에도 과도로 민감하게 개입하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부모의 여러 가지 불안(예컨대, 분리불안, 박해적 불안 등)이나 유아적 의존적인 부모자녀관계로부터 생기고 어린이의 자아의 성장이나 사회성의 발달을 저해하고 부모자녀관계를 유아적인 것으로 정체시켜 버린다.

어린이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과보호라고 하는 현상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청소년, 청년기는 P.Blos가 말하고 있듯이 제2의 분리, 개체화의 시기이고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가 되기 때문이다(Blos, 1967).

이 단계는 지금까지 의존대상인 동시에 애정대상이었던 부모를 떠나 가족 외의 인물을 향하여 최종적으로는 이성대상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부모자식이 함께 그 분리를 둘러싼 과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의 측에서는 일종의 대상상실, 부모를 대신하는 의존, 동시에 대상에 대한 회귀, 가정 사회 외의 사회적 장면으로의 적응 등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한편, 부모 측에서도 자녀의 독립에 의한 대상상실과 동시에 어린이의 성적 발달에 동요하기도 하고, 그 행동을 위협시키거나 과도한 염려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해서 자율과 의존이라고 하는 양면가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진정한 개인으로서의 독립을 획득하기 위한 고투를 하는 어린이를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부모의 능력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Harter, 1988). 부모-자녀관계에 자율과 의존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현저하게 출현하는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관계의 여러 유형이 재현되어 온다.

과보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관계에 미친 영향이 결과로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 시기인 것이다. 우리들은 그 결과를 정신병, 신경증, 성격 장애 등에서 볼 수 있다(김영희, 1996; 김혜련·이재연, 1994). 이러한 모습들은 청년기의 중요한 달성과제로 이른바 Erikson이 말하고 있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박아청, 1996).

과보호의 유형과 과보호부모의 양육태도

과보호의 유형

이상으로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자식관계의 추이와 함께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과보호에 대해서 개설하였다. 다음에는 과보호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장해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일찍이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아동교육에 대한 형태를 구분해서 다룰 때 과보호의 유형을 몇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예컨대, 장대운(1993)의 분류와 신경숙(1993)의 익애형, 전제형 그1이다.

여기에서는 과보호라고 불리우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태도를 어린이의 발달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작용하는가하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과보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어린이의 현재의 발달단계에 맞춘 보호를 과잉으로 또는 편중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 태도는 과보호라고 불리우는 것 가운데 가장 흔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예컨대, 배변 훈련 가운데 어머니가 어린이의 배변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빈번하게 변기를 갖다주거나 규칙적으로 훈육하려고 어린이가 어머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심하게 꾸중하거나 또 어머니 뜻대로 되면 물건을 주거나해서 어리광스럽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정원식 등, 1996). 또는 밖에서 놀이를 시작한 어린이가 사고

를 만나거나 다른 아이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하면 시종 어린이를 꼭 잡고 있는 것이라든가 길에서 넘어지기라고 하면 어머니가 놀라서 기겁을 하는 통해 어린이가 도리어 어머니의 반응에 놀라 울음을 터트리고 이에 어머니가 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이 범주에 속한다. 또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하여 어머니가 어린이의 손발이 되어 헌신하는 것도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A.Maslow(1962)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결핍 또는 부족을 채우려는 결핍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정서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스스로 성장하려는 성장 욕구가 있다. 과보호를 행하는 부모는 어린이의 성장동기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2) 어린이의 현재의 발달단계보다

이전의 보호를 계속하는 것

이 과보호는 어린이를 그의 연령 이하의 어린이로 취급하는 퇴행적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도 어머니가 매일 옷을 입혀주고 주변의 정리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보호는 보통 극단적이라고 주위에서 말하지만 계속된다. 요즈음 대학의 입학식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등에서 잘 알 수 있다(김덕순, 1996; 박태희, 1996). 그리고 대학입시 때 정문에 서서 하루종일 시험치루는 자식을 위해 정문에 떡을 바르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오늘의 과보호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자식을 키워왔는지를 생각해볼 수 없다.

정범모(1997)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를 각종 '심약자'로 기르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근래 우리에겐 '욕구불만', '좌절', '스트레스'는 으레 나쁜 것, 피해야 하는 것, 아이들에게도 그런 상황을 맛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유행하고 있다. 거기에 한국부모들에게 특유한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기른다는 철학이 가세해서, 공부하라는 성화 이외에는 아무 어려움도 겪게 하지 않고 멋대로 자라나게 방임하는 풍조가 짙다. 이것은 크나 큰 잘못이고 환상이다. 아이들은 적절한 어려움, 뜻있는 아픔, 보람있는 슬픔을 직시하고 이겨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간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면모이다 (1997, p.334).

(3) 어린이에게 앞으로 해야할 보호

를 미리 시기상조로 보호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주로 '불면 날라갈 것 같고 놓으면 꺼질 것 같은' 부모심정이라는 부모의 자기애와 관련되어 있다(신경숙, 1993; 홍진복, 1995). 즉,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희망이나 욕구를 어린이를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어린이의 조숙을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심리 등에서 이와 같은 과보호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의 인격전체의 발달을 일찍 촉진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측면, 특히 지적인 측면만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어느 특정한 측면에 대해서 발달을 촉진시키려고 과보호를 하는 대신에 다른 측면에는 보상적으로 보다 퇴행적인 과보호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장면이나

대인관계에서 곧 부적응을 일으키는 우등생 등은 이와 같은 과보호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정희, 1996). 요즈음 우리나라 우수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자살이라든가 비행은 이와 같은 과보호에 그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보호부모의 양육태도

이상 과보호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것들은 부모의 태도가 곧 어린이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는 3가지 모두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부모자식관계 속에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들은 부모자식관계를 보다 친밀한 것으로 하거나 또는 어린이의 건전한 자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부모자식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경우에 즉, 부모자식관계가 과보호를 지속적으로 고정화시켜버리는 경우, 유연성을 결여된 경우에 그 부모자식관계 자체가 어린이의 자아의 발달에 장애를 주기도 하고, 심적 외상을 주게 되며 어린이의 성격에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경향을 만들게 한다. 즉, 반복하게 되면 과보호라고 하는 현상이 어린이에게 있어서 유해한 것이 아니라 과보호를 유지하고 고정화해버리는 부모자식관계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상담 또는 임상장면에서 과보호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태도를 볼 때 그 현상이 어린이의 문제나 병리와를 단락적으로 관련시킬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어린이의 자아의 발달 정도나 그 부모-자녀관계의 모습을 조사하는 것

이 당연하며, 그리고 그 부모자식관계를 결정짓는 부모와 어린이 나아가서 형제나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각각의 내적 갈등이나 무의식공간 및 그것들의 상호관계 즉, 가족내의 무의식적 역동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지면서 비로소 거기에 나타나는 과보호의 의미와 나아가서 어린이의 문제나 증상과의 관련이 밝혀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보호하는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그 공통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 자녀를 독점하려고 한다. 자녀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고 떨어지기 싫어하며, 아동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독점하려고 하는 부모들이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자녀가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항상 아기 취급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기같이 자기를 의지하고 아기같은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
- 3) 자녀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한다. 부모는 아동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아동이 운다든지, 어떤 요구를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려고 노력 한다.
- 4)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이 많다. 과보호형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에 지나친 주의를 하며 간섭을 하는데 아이가 조그마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도 곧 도와주고 자기가 무엇이나 다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 5) 걱정을 많이 한다.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지나치게 걱정하고 야단법석을 떠난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지나치게 보호하며 나았을 때도 여전히 아플 때와 같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 6) 자녀를 과대평가한다. 자녀의 결점을 바로 볼 줄 모르고, 과대평가하며 타인의 충고나 비난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의 잘못을 꾸짖기라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화를 낸다.

파보호의 사회적 배경

지금까지 우리는 파보호에 대해서 발생 원인 및 구조를 발달심리학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파보호는 오늘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한 자녀의 가족 구성이 특징인 나라에서는 거의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9월 일본에서 세계각국의 교육의 현안문제를 논의한 일본교육심리학회 특집기획편 '아시아의 어린이와 교육 (Asian children and Education: How they are reared and educated)'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태국의 공통적인 교육문제로 아동에 대한 파보호 현

상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씻을 수 없고, 계란을 깰 수 없는 아이들"(일본), "자립성의 발달이 늦는 아이들"(중국), 그리고 "부모에 의해 과도한 제한과 보호 속"(태국)에 있는 아동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다. 특히, 한 자녀만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자녀를 '小皇帝'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파보호적인 자녀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日本教育心理學會, 1995, pp.3-6).

이것은 이 파보호라고 하는 현상이 단순히 발달심리학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잠시 사회적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이 파보호의 사회적 배경을 언급하려고 한다.

파보호는 사회현상으로서 현대사회 속에서 나타난 것이며, 파보호의 형성에는 현대의 사회적 현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지신·박성연, 1997; 이원영, 1983; 임채식, 1988; 정옥분 외, 1997; 조병효, 1993). 우선 들 수 있는 점은 어머니와 자식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이 경제의 핵을 이루던 전통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가족구성이나 가족형태의 변화 중 외부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가족간의 인간관계, 역할, 가치관 등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결국 가족 외적인 사회와 문화의 영향력이 증대됨으로 인해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그나마 부모들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혼란속에서 자녀양육문제에 갈등"(김지신·박성연, 1997; 이계학·유혜

형·손직수·이홍우, 1994; 현은민, 1994)을 겪고 있는 것이다.

먼저 가족수의 감소에는 조부모와 기거 가족수의 가족이 감소되어 예전과는 달리 부모자식관계가 중심이 되었으며, 아동의 수도 적어 혼자서 부모에게 접촉하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근로자세대의 증가로 모자관계 중심으로 되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아버지를 휴일 이외에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가족형태의 변화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치게 됨에 따라 어머니의 생활구조와 아울러 모자관계를 규정해가는 요인이 되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전통-근대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 가치관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김지신과 박성연(1997)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가치관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적 가치관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가족수의 감소는 가사노동의 감소에다가 전기제품과 의류보급 등 여성의 자유시간을 가지는 생활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어머니는 자녀와의 일체성이 강해지고 자녀 중심의 생활의식을 가져 자녀양육이 생애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또 언제나 관심이 아동에게 집중되어 지나치게 도와주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임채식(1988)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취학을 하고 나면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상상을 초월한다. 지적 성장에 치중한 이

러한 관심은 결국 자녀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에는 실패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머니와 자녀가 밀착하게 되는 상태는 지역사회의 변화에서 오는 관계이다. 공업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그 과밀상태, 이에 따른 교통위기가 많게 되고, 또래와의 자유놀이도 부모감독시야 내에 있어야 하며 진학경쟁의 확대로 자녀에게 더욱 밀착하게 되어 지배와 통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유의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일체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은 처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한정되어 어린이 양육이 생활의 큰 목표이고 역할이었다. 그러므로 한정되고 종속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과 동일화하는 것을 살아가는 보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자식은 아버지가 권위적일수록 수용적인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되는 것이다(김광웅·박성연 옮김, 1995, pp.287-289).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녀와의 상호 의존적인 애정은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 지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이원영, 1983; 이기숙, 1993). 오늘날 여성지위는 법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변하지 않은 면과 변화한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변하지 않은 면은 여성의식이 가정중심적이며, 자녀를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많아 결국 밀착된 모자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된 면은 부모의 통제과잉 태도형성이 해방

후 여성지위변화에 영향이 되었다. 그것은 가정내 역할에 있어서 권한의 강화와 교육수준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주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것이다. 여성이 취업이 가져 온 양육행동의 변화도 부모-자녀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양육태도 또는 양육행동에 대한 주요한 연구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김영주, 1980).

가정내의 역할에서 권한이 강화되어 온 것은 핵가족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담당자가 단수가 되어 온 것과 둘째,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성의 권한이 강해진 것이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의 능력과 기대와 보람을 교육과 육아에 뚝으로써 한층 통제과잉적 태도가 형성되는 경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기숙(1993)은 이러한 현상으로 유아교육기관은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며, 종래의 가정이 가지고 있던 교육 및 훈육적 기능이 점차로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로부터 점차 유아교육기관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나, 가정이 고수해 온 전통적인 교육적 기능이 점차로 약화되어 가고 있고, 전문기관에 의존하면 교육이 다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감정적인 교류를 제대로 못하고 다만 형식적인, 경제적인 부모노릇만 함으로써 자녀들의 자아와 초자아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동일화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p.276), 한편으로

부모들은 이를 보상하려고 자식교육에 '과잉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증시되어 온다는 것의 일면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차차 잃어져 가고, 가정교육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불명확하게 되어 온 것과 관계가 있다(김광웅·박성연, 1995). 사회의 전환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점점 혼란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고, 드디어 아버지로서의 남성은 가정의 경제적 기반으로만 중심적 역할이 되어 버렸다. 이러 상황에서 가정의 생활환경 및 육아와 교육의 중심적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어머니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책임은 매우 강화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보호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큰 사회적 요인은 입학을 위한 진학경쟁이다(박아청, 1996). 진학경쟁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장래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또한 계층 상승의 요인으로서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진학경쟁은 어린이의 바람직한 행동은 제쳐놓고 오로지 공부를 위한 통제적 태도와 자녀와 밀착하는 수용적 태도와 결부됨으로서 결국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학진학에까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기간이 장기화된 오늘날 자녀에 대한 과보호의 영향은 더욱 크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맺는 말

지금까지 과보호가 갖는 발달심리학적

의미와 아울러 이러한 과보호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과보호가 단순히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 즉 부모자식관계에서만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과보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김정희(1996)의 교육적 대책은 공감이가 간다.

사회나 학교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곧 좌절에 빠져 자살과 같은 비행으로까지 쉽게 치닫는 오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내 자식만이 최고여야 한다"는 가족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교육하는 가정과 사회가 될 필요가 있다 (1996, p.68).

그러한 의미에서 과보호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보다 건전한 보호와 통제 속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과보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연구의 과제를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과보호 현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평면상의 위치설정 보다는 2차원적인 공간에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과보호 현상을 초래하는 양육태도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과보호적인 양육태도 자체가 복

합적인 것인 만큼 과보호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보호에 따른 아동의 행동을 단순히 한가지 변인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보호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양육태도 및 부모행동을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통제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양육태도의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 학 용(1996). 청소년 문제와 대책. **현대사회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청소년대화의 광장, 12회 특수상담 사례연구발표, 73-81.
- 공 인 숙·최 연 실(1994). 양성적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역량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 15권 제1호, 187-203.
- 김 광 용·박 성 연 옮김(1995).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M.E.Lamb (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 덕 순(1996).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도서출판 정일.
- 김 성 옥(199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영 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 영 순(1986). 어머니의 육아방식과 아동의 인지적 조망수용 능력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영 주(1989). 취업모의 인지훈육적 양육방식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 영 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7권 제2호, 19-32.
- 김 정 희(1996).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원인, 반응 및 대책. 현대사회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청소년 대화의 광장, 12회 특수상담사례연구발표, 61-70.
- 김 지 신·박 성 연(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제18권 제1호, 125-142.
- 김 혜 련·이 재 연(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5권 제1호, 91-108.
- 노 명 희(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 희 상(1995). 센스있는 아버지의 신세대 자녀교육. 서울:도서출판 우리문학사.
- 박 아 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II.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박 아 청(1996). 현대사회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현대사회환경과 청소년의 좌절, 청소년 대화의 광장, 12회 특수상담사례연구발표, 7-19.
- 박 윤 중(1995). 부모의 거름이 자식의 열매를 만든다. 서울:도서출판 백암.
- 박 용 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제16권 제1호, 113-131.
- 박 태 희(1996). 오늘의 가정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도서출판 이서원.
- 손 화 희·윤 종 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제11권 제1호, 58-71.
- 신 경 숙(1993). 부모의 양육태도와 국민학생의 정신건강간의 상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 춘 자(199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 말 애·조 복 희(1985).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취학전 아동의 지능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제4호, 200.
- 양 문 현(1983).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 영 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 영 주(1990). 공부에 대한 부모의 과잉관심이 아동의 시험불안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 영 희(1979).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인지와 그 자녀의 적응.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 형 근(199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인성특성과 학급내 사회성 수준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 경 화(1992). 유아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 윤 성 옮김(1997). 현명한 부모 (R.Schaffer.(1990) *Mothering*. London: HarperCollins Publishers Ltd.). 서울:동문사.
- 윤 웅 섭(1992). 과보호 아동의 가정적 배경과 인성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계 학·류 혜 령·손 직 수·이 홍 우(공저)(1994). 한국인의 전통 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 기 숙(1993). 유아,가정교육의 실상과 방향.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제31권 제4호, 271-288.
- 이 미 애(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 욱(1978). 아동의 언어발달요인으로서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원 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 홍 우·오 만 석(1973). 인지훈육적 관점에서 본 육아방식의 상관변인. *Research Bulletin*, Vol.16.
- 임 채 식(1988).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새세대, 제43호, 한국어린이육영회, 14-17.
- 임 희 수·박성연(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제15권 제2호, 153-168.
- 장 대 운(1993). 청소년부모교육론.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전 경 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 범 모(1997). 인간의 자아실현. 서울:나남출판.
- 정 명 교(1983).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 순 규(1995).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서른 여덟가지 지혜. 서울:에가출판사.
- 정 승 원·도 현 심(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회지, 제18권 제2호, 149-161.

- 정 영 숙(1976). 한국유아의 낮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 옥 분 외 7인(1997). 전통 '효'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제18권 제1호, 81-108.
- 정 원 식(1996). 21세기를 지향하는 가정교육. 청소년대화의 광장 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63-175.
- 정 원 식·김 재 은·박 성 수(1996). 이 시대의 자녀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정 은 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 현 희·최 경 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6권 제1호, 33-47.
- 조 병 효(1993). 21세기의 자녀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조선일보 사회부(1991). 가정교육. 서울:도서출판 우석.
- 조 희 령(1982). 창의성과 창의적 인성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 재 호(1985). 발달심리학연구의 최근동향. 한국심리학회 제4회 연수회 교육자료, 37-62.
- 천 희 영(1990). 한국아동의 기질유형과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 은 민(1994).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전달 및 가치변화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24-35.
- 홍 진 복(1995). 어린이는 부모를 거울삼는다. 서울:서림문화사.
- 황 용 연·이 기 돈(1992). 신강 발달심리학. 서울:배영사.
- 日本教育心理學會(1996). 教育心理學年報. 第35集, 3-6.
- Baumrind, D.(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Blos, P.(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1:Attachment*. London: Hogarth Press.
- Erikson,E.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on.
- Harter, S.(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le, New Jersey:Erlbaum.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 New York:McGraw Hill.
- Mahler,M.S.(1965). Mother-Child Interaction During Separation Individuation. *Psychoanalysis Quaterly*, B4, 483.
- Mahler, M.S., Pine,F.,&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s Books.
- Maslow, A. W.(1962). *Toward a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Paulson, M. J.(1972). Family Harmony. *Child Development.* New York: Prentice Hall, 600-602.
- Schaefer, E. S., & Bayley, N.(1960). Consistency of Maternal Behavior from Infancy to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1, 106.
- Symonds, P. M.(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Winnicott, D.W.(1971). *Playing and Real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A note on the over-protection for childrearing in its developmental psychological aspects

Park, Ah-Chung

Keimyu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over-protection, as being currently mentioned with regard to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examined in its developmental psychological aspects and, in particular, in its developmental process of mother-child relationship; its relationship with a child's formative autonomy was identified; and developmental psychological meaning of over-protection was explored. And through reviewing the researches on the childrearing attitude which performed in Korea recently, parental over-protective behaviors were analyzed. At the same time, the social background that is conducive to over-protection was discussed by mentioning negative influences of over-protection on the child and a few things that are harmful to the development of autonomy. It was found that the issue of over-protection has become not just a problem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 but a social problem. Finally, a few suggestions for the research on the 'over-protection' in childrearing behavior were made to perform sound protection and control for the child.

Key words: overprotection • parent-child interaction • childrearing